

들리지 않는 목소리

MBN

한영광 기자



차강석 씨가 인터뷰를 준비하는 모습 (MBN 뉴스8 캡처)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팔, 다리, 얼굴, 귀, 입,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미친 사람이야.” 초등학생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했다고 믿기 힘든 이 목소리가 세상에 나온 날 대한민국은 로열패밀리의 갑질에 다시 한번 울분을 토했다. 특별한 설명도 없는 ‘조선일보 사장 손녀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1분 40초짜리 음성 파일의 위력은 대단했다.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최고 권력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의 회장 아들을 현 직책에서 내려오게 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도에서 목소리(싱크)는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이다. 지면 매체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생생함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목소리는 화자의 감정,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시청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그렇다 보니 시청자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확실한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이에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특종을 본능적으로 찾아 헤매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가끔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은 자극적인 목소리들의 연속인 것만 같다. 뉴스가 그렇다 보니, 이러한

자극의 연속인 현장을 누비다 보면 기자로서 지치기도 하고, 무력감이 든다. 세상은 엄청난 자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의 기자들은 취재 경험을 통해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의 희로(喜怒哀) 그리고 애락(哀樂)을 기사에 담고 싶지만 슬프고 분노할 자극적인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 대한민국에서 인생의 다양한 맛을 담아내는 기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러다 작지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만날 흔치 않은 ‘기회’들이 생긴다.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나는 순간이 있다. 조금이나마 인생을 배울 수 있었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소개해볼까 한다.

장애인에 대한 뉴스는 기자들에게 흔하다고 하면 흔한 뉴스이다.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법들을 생각해보는 구조로 단순하다. 매일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아이тем들이다. 차강석 씨를 만나기로 했던 날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제로 뉴스를 제작하고 있었다. 오전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



미디어오늘 TV조선 전무딸 녹취 보도 캡처

한 해명을 듣고, 이어서 첫 사례자를 만났다.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공단 측의 말과,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는 장애인 측의 인터뷰를 어렵지 않게 들었다. 순조롭게 오전 취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뒤 두 번째 사례자를 만나러 보도차에 올라탔다.

교통 흐름까지도 순조로웠던 그날은 세 번째 목적지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 취재기자 후배가 조금 일찍 도착한 것을 인터뷰이에게 알리고, 곧 인터뷰를 시작하게 될 줄 알았다.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했던 차 씨는 30여 분이 지나도록 연락을 주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도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차강석 씨는 뇌성마비로 인해 전신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 차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다. 부정확한 발음과 거친 숨소리만으로도 그가 많이 화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차 씨 생활보조 선생님의 해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섭외를 도와줬던 복지관에서 우리를 신문 매체로 소개했다는 것이다. 한 번 몸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데 신문이라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터뷰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며 빨리 인터뷰가 진행되기를 바랐다.

인터뷰하는 모습



서로의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 후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잠시만 밖으로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또 기다려야 하나라는 짜증이 났지만 일정이 진행됨에 안도하며 마루로 나가 기다렸다.

십여 분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처음과 다른 말끔한 모습으로 취재진을 맞이했다. 그가 작업을 한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제야 마이크가 필요 없음을 인지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발음을 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차 씨는 당황하는 우리를 향해 컴퓨터 모니터에 “걱정 마세요. 컴퓨터를 통해 대화할 수 있어요”라고 말을 건넸다. 이렇게 목소리 없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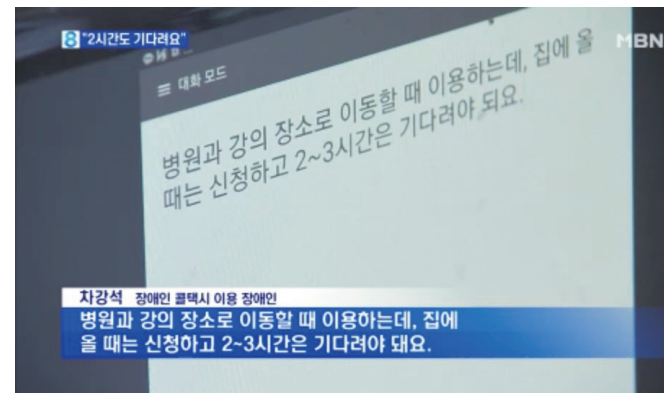
취재기자과 카메라 위치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듣고 싶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화면 속 첫 멘트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대면에 소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아차 싶었다. 우리도 하지 않은 첫인사를 인터뷰이가 먼저 건넨 것이다. 인터뷰 성사 여부 문제 때문

에 활동보조 선생님과만 인사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글)은 취재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단번에 깨닫게 해주었다. “저는 장애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카메라에 아무렇게나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그의 음성도, 타자 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던 방 안에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다. 우리는 그의 상황에 대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문가들을 섭외해 인터뷰할 때면 당연히 인터뷰하는 사람의 옷과 얼굴 상

태, 주변 환경까지 생각하는 것이 취재의 기본이다. 카메라가 익숙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현장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야 하는 당사자가 준비할 시간마저도 우리는 주지 않았던 것이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다고 했던 그의 말에서 우리가 근 1시간 동안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되뇌었다. 그는 우리에게 인터뷰를 해주는 대상이었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주제로 삼아 리포트를 제작하니 장애인들은 우리를 당연히 도

차강석 씨 인터뷰 모습 (MBN 뉴스8 캡처)



차강석 씨 인터뷰 모습 (MBN 뉴스8 캡처)

와줘야 하는 것이었다. 그가 인간이고 성인이며,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찍힐지 걱정하는 일반 시민이라는 생각을 한 순간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곧바로 그에게 사과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잘못을 구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세세한 면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나의 가슴속에는 그 어떤 목소리보다 그의 음성이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들 그러세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잘못된 것이니 서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리지 않는 모니터를 통한 인터뷰가 이어졌고, 평범한 듯 평

범하지 않은 장애인 관련 뉴스가 완성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의 크기만을 신경 쓰며 살아간다. 내가 남보다 더 크고, 더 큰 힘을 가졌다고, 혹은 갖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차강석씨의 들리지 않던 목소리는 그 어떤 큰 목소리보다 내 가슴속에 더 깊고 오래 남아 있는 듯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 달라던 그의 어찌면 당연한 요구를 말이다.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나 역시도 그의 말소리를 잊고 살아가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큰 목소리보다 소중한 작은 혹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

